동성애와 문화

동성애 문화콘텐츠가 청소년에 끼치는 영향

●한경훈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LA)에서 상업음악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KBS에서 다수 프로그램 음악감독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방송음악가로도 활동 중이다.

I. 들어가며

미국 RAND Corporation의 Anita Chandra박사 연구팀이 미국 소아과학회지 Pediatric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 '프렌즈(Friends)' 등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다수의 TV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한 청소년들이 동일 프로그램의 시청 시간이 적은 청소년보다 여자 친구를 임신시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기간은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조사대상은 12세부터 17세까지 미국 청소년 2천여 명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자주 노출된 청소년들 중 91명이 임신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임신시켰다. 직접적인 성행위 장면이 많은 '섹스 앤 더 시티' 드라마의 경우, 시청 시간이 가장 많았던 조사대상자 그룹의 임신율이 25%에 달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선정적인 대중매체가 아직 성적행위에 대한 책임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며, 자극적인 소재의 콘텐츠를 마주할 때 주의와 분별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난 5회에 걸쳐 축제, 언론, 영상매체, 공연, K-Pop 등 국내 대중문화계 전반에 나타난 동성애적 요소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이번 마지막 6회에서는 이 같은 동성애 문화콘텐츠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보고, 야기될 수 있는 청소년 문제와 여러 사회적 문제들의 연관성까지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문화의 유해성에 대해 객관성을 바탕으로 논하여 보고,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II. 동성애 문화콘텐츠가 청소년의 동성애 인식 변화에 끼치는 영향

1. 해외에서 연구 및 보고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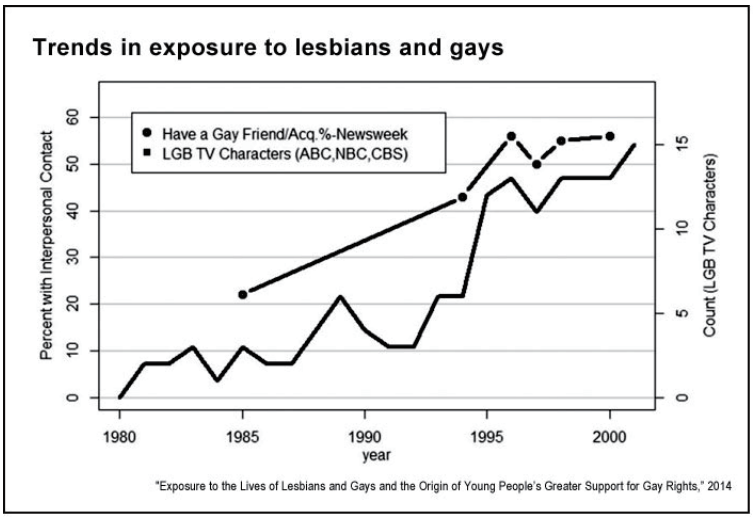
오늘날 미국 방송 콘텐츠에 비춰진 게이의 모습은 과거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과거에는 동성애자가 한편의 에피소드, 또는 조연으로서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흥미 위주의 소재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동성애 콘텐츠가 미국 상업 TV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

며, 동성애자의 극중 역할이 고정배역인 것은 물론 어느 이성애자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려진다. 국내에서도 인기를 끈 방송 드라마 〈Queer as folk〉의 게이 주인공 Brian Kinney는 30대 중반의 젊고 능력 있는 광고회사 임원 캐릭터이다. 외모, 능력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화려한 게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NBC의 목요 시트콤 〈Will & Grace〉의 게이 주인공인 Eric McComack 역시 변호사에 남성적인 용모를 갖춘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되었다. 게이와 레즈비언 소재 드라마가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편성이 되며, 이들 동성애자들은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보통 사람들도 호감을 느낄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설정된다. 소위 동성애자들이 흔히 겪게 되는 약물 중독이나 AIDS, 혹은 아동 성폭력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들은 드라마에서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The Advocate magazine은 이 같은 방송매체가 정상적인 10대에게 동성애자를 우상화하는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TV에 비치는 게이 역할의 긍정적인 면이 청소년들의 역할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GLAAD organization의 미디어 디렉터 Scott Seomin 역시 "10대들이 TV에서 게이 배역들을 보게 되는 것은 치명적이다. 아이오와에 사는 한 10대 시골소년이, 매력적이고 재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용인된 인물로 묘사되는 TV드라마 〈Dawson's Creek〉의 주인공 잭을 본다면, 그도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얻게 될 것이다."며, TV에 비춰지는 동성애자들의 모습이 일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동성애 인식변화에 대한 해외 연구 사례들을 요약한 것이다.

Levina & Waldo(2000)은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에 발표한 논문에서, 학생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으로 게이를 재현한 미디어를 보여준 후 학생들이 갖는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비디오를 시청한 학생들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비디오를 본 학생보다 훨씬 많이 동성애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Gomillion and Giuliano(2011)는 Journal of Homosexuality 논문에서 성소수자의 정체성에 미치는 미디어의 효과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방송물에 등장하는 동성애자 캐릭터의 유명 연예인으로 인해 동성애 수용 효과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발표하였다. Jeremiah J. Garretson은 미국 국립 선거 연구 패널(ANES)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가지 사실을 연구하였다. 1990년대 TV, 영화 등 대중매체를 통한 게이와 레즈비언의 노출 증가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끼쳤고, 특히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아 실제 접촉율의 증가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성애자 권리 정책 지원으로 이어졌음을 주장하였다. 즉, 청소년이 바뀌면 어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제화가 더욱 빠르게 앞당겨 진다는 것이다. ANES에 의하면 1984년과 1988년에 레즈비언과 게이들의 평균 지지도 영향력은 30% 이하, 2000년에 40%대로 상승, 2012년 약 48%에 육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성애 커뮤니티가 정치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되어가는 것이다. 아래 그래프[1]는 동성애자(LGBT) 캐릭터가 TV에 노출되는 횟수에 따라 청소년들의 실제 삶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친구를 만나게 되는 횟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1 Garretson, Jeremiah J. "Exposure to the Lives of Lesbians and Gays and the Origin of Young People's Greater Support for Gay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November 2014

2. 국내에서 연구 및 보고된 사례

2001년에 개봉 한 영화〈번지점프를 하다〉는 남성 사제지간의 동성애를 담아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당시 감독은 "동성애 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할 정도로 당시만 해도 동성애는 사회적 금기대상이었다[2]. 전환점의 계기는 2005년에 개봉한 영화〈왕의 남자〉였다. 〈왕의 남자〉는 동성애의 어두운 면이 아닌 예쁘고 여성스러운 남자 배우를 전면에 부각시켜, 많은 여성 관객으로부터 '꽃미남 신드롬'을 일으켰고 동성애의 거부감을 줄여가기 시작했다. 흐름을 탄 동성애 영화는 2006년 〈후회하지 않아〉를 통해 동성애를 정통 멜로물로 아름답게 포장하였다. 극장개봉 독립영화로는 역대 흥행 3위를 기록하게 된다. 이 같은 영화계의 흐름은 안방까지 파고들었다. 2007년 MBC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 2010년 MBC의 〈개인의 취향〉, SBS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등 대중매체들은 패셔너블한 '꽃미남' 동성애자들의 사랑을 유쾌하게 그려내며 '동성애 문화'를 미화시켜 양지로 끄집어냈다.

'꽃미남 신드롬'은 방송물에 그치지 않았다. 주로 K-Pop 아이돌그룹 멤버들간의 동성애를 소재로한 소설 '팬픽(Fanfic)'이 성행하게 되었고, 동성간 애정행각이 스타성을 등에 업고 표현되어짐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판타지를 심어주게 되었다.

실제로 한 언론사의 퀴어축제현장 인터뷰에

2 "동성애" 정신병에서 신드롬이 되기까지, 노컷뉴스, 2010.07.30.

서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관계자는 "우리 '친구사이'가 생긴 지 16년이 되었어요. 지난 16년간 열심히 인권운동을 했는데, 그것보다 대중매체에서 한 번 드라마를 방송한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 있죠.[3]"라고 대중매체의 파급효과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다음은,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동성애 인식변화에 대한 국내 연구 자료들을 요약한 것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2003년 5월 22~31일 2,280명의 남녀 중·고생을 대상으로 동성애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물을 보고 난 후 "따라 하고 싶거나 성적으로 흥분되었다" 및 "동성애에 호의적인 느낌이다"라는 답변이 32.7%에 달했다. "동성애물을 보고난 후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는 답변은 18.9%였다[4].

전민경 외 2인(2017)은 '고등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에서 고등학생 290명을 설문하였다. 동성애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신문, 영상, 만화, 책, 인터넷 공간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동성애 정보를 접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동성애에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음란물로 확인되었다. 정혜윤(2014)은 '일반인의 성소수자 인식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은 40~50대, 20~30대, 10대로 나뉘어 총 90명이다. 연구도구로는 Wright, Admas & Bernet가 1999년에 개발한 동성애 혐오척도(The Homophobia Scale)로 정서, 인지, 행위에 대한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방법은 대상자들에게 2013년 KBS에서 방영된 TV프로그램 〈힐링캠프 – 홍석천 편〉을 시청하게 한 후 사전, 사후의 인식 변화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비디오 시청 후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행위, 정서, 인지의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모든 연령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는데, 40~50대는 76%, 20~30대는 97%, 10대는 96%가 각각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특히 이 연구는 종교 특성별 연구도 수행하였는데, 40~50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생각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기 보다는 본인의 노력과 기관의 도움으로 이성애자로 바뀔 수 있다고 인식한 반면, 10대는 이 비디오를 통해 동성애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종교에 상관없이 성소수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연구결과 나타났다. 실제로 한 언론보도에서 중·고등학생의 53.6%가 영화와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19.3%는 동성애자인 연예인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의식을 형성했다고 밝힌

3 게이 인권 운동 16년보다 드라마 하나가 더 효과적, 오마이뉴스 2010.06.14

4 국민일보 2015년 6월 26일자 기사 인용

바 있다[5].

이 같은 여러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성애를 미화하는 문화콘텐츠를 접한 대부분의 10대들은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인권 프레임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더욱이 '꽃미남'과 같은 미화된 면만을 부각시켜서도 안 된다. 동성간 성행위의 여러 비윤리적 행태들과 질병 문제, 그리고 소아 성폭행과 같은 연관된 사회문제들도 분명 나타내야만 한다. 이런 부분들을 마냥 덮어두고 방임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권이 아니다.

III. 소수에서 다수로, 국내 청소년의 동성애 인식 현주소

글로벌리서치가 지난 2014년 전국의 중고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51.7%의 학생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동성애도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중학생 65.5%, 일반 고등학생 66.2%, 기독교인 중학생 40.9%, 기독교인 고등학생 34.5%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해 동성애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결혼도 가능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28.9%를 차지했다[6]. 10대의 3분의 1이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 조사로써 전민경 외 2인(2017)의 연구 '고등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논문을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징그럽다" 등의 부정적 의견이 39.5%를 차지한 반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호기심이 생긴다" 등의 긍정적인 의견이 43.4%로 우위를 점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8.3%였으며, '동성애자를 직접 만나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9.7%, 그 중 '3회 이상의 만남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0.7%로 조사되었다.

20대의 경우 역시 찬성 의견이 다수로 돌아섰다. 한국갤럽이 2017년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대(19~29세)층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이 66%로 매우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전체 성인남녀로 따지면 34%가 찬성, 58%가 반대로 여전히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지만, 20대 청년층에 가서는 과반수를 넘어서는 역전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7].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보여 지는 동성애의 미화된 모습만을 알고 있다. 동성애가 야기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금하는 풍토로 인해 쉽게 논하기가 어렵고, AIDS나 질병의 문제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을 자제시키고 있는 등 학술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들에 입

5 아이굿뉴스 2016년 6월 2일자 기사 인용

6 아이굿뉴스 2016년 6월 2일자 기사 인용

7 아이굿뉴스 2017년 6월 14일자 기사 인용

각한 객관성 있는 의견 게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수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사회'라는 '인권' 프레임을 통해 '감성적'으로만 접근되어지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IV. 동성애 확산, 여러 청소년문제와 사회문제의 악순환 우려

1. SNS, 스마트앱, 동성애자 전용 사이트를 통한 무분별한 쾌락추구

미국의 조사업체 MarketingCharts.com이 2014년에 발표한 US LGBT Media Habits에 의하면, 미국 동성애자들의 대중매체 소비율 1위는 'LGBT websites & blogs' 이용으로 나타났다. 18세부터 34세 사이의 동성애자 74%가 게이 전용 웹사이트, 블로그를 이용한다고 답한 것인데, 소비율 2위인 'TV & 영화 등 영상물 시청', 3위인 '구글 등 포털사이트 이용'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이색적이다. 다시 말해, TV시청 또는 포털사이트 이용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할 만한 매체보다도 동성애 전용 웹사이트 이용이 미디어 수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국내에도 여러 동성애 전용 사이트들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I' 사이트의 경우, 25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 하루 이용자만 약 5만 명 이상이다. 그 밖에 'D' 앱, 'J'앱 등 스마트앱도 성행이다. 'D'앱의 경우 10만 명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이 같은 SNS 매체를 통해 자신의 성적취향, 신체부위, 연락처 등을 공유하고 성관계 파트너를 찾는다. "애널섹스 해주실 분", "성기가 큼", "번개할 사람" 등의 자극적인 글을 통해 상대를 유혹하고 너무도 쉽게, 아무런 조건없이 1회성 성관계를 갖는 형태이다. 일부는 '묶고, 때리고, 맞는' 가학적인 행위의 동성애를 추구한다. 안타까운 것은 10대 청소년들이 성관계 파트너를 찾는 글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항문성교를 통해 욕정을 해소하려는 10대들로 넘쳐나고 있다.

2. '바텀알바' 등 10대 청소년의 동성간 불법 성매매 확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동성애자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 미성년자들의 불법 성매매가 성행중이라는 것이다. "알바합니다. 연락주세요", "키스는 3만원, 오럴섹스는 4만원, 탑까지 하면 5만원", "바텀알바 합니다. 페이는 7만~10만원, 학생은 4만~7만원에 가능" 등의 성매매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10대 청소년들로서 성폭행 등 강제성을 띄지 않고는 소아성애를 충족할 수 없는 성인들을 위한 노골적인 호객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자신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성인을 상대로 용돈벌이까지 하는 불법행태가 이미 만연되어 있는 현실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동성애와 관련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동성애 성향을 가진 10대 청소년들이 점점 더 음성적이고 위험한 성문화에 노출되는 것 같다[8]"고 우려를 표했다.

3. 늘어나는 남아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악순환되는 사례가 다반사

정부가 2015년 처음으로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를 입은 남성의 수가 한 해 천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2011년 740여 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060여 명으로 늘어 증가세가 뚜렷하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2010년 702건이었던 남성 성폭행 피해는 2017년 253% 늘어난 1778건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자는 어린이, 청소년이 다수이고 성인 남성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해바라기센터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성폭력 피해로 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전체 피해 상담의 20%에 달해, 2016년 17.54%, 2015년 16.50%에 비해 남아 성폭행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남아 동성 성폭행 피해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고등학교 운동부 선배가 동성 후배를 3년 동안 성폭행하고, 코치는 해당 가해자를 성추행했던 사건', '2014년 20대 대학 휴학생 남성이 지난 4년간 12살, 13살의 남자 아이들만 골라 7명을 성폭행한 사건', '2014년 52살 남성이 중학교 남학생 2명을 찜질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 '2015년 학교 운동부 선배가 중학생 후배를 놀이터에서 성폭행하고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 '2015년 50대 남성이 13살 남학생을 금전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촬영한 사건', '2018년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남자교사 사건', '2018년 유명 성악가가 자신의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 등 전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으며 소아 성폭행 범죄의 새로운 유형으로 주목 받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같은 소아 동성 성폭행 피해자도 추후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마치 데자뷰와 같이 그 또한 소아 동성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Family Research Institute의 Paul Cameron박사에 의하면, 동성애자가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대나 사춘기 때, 나이가 더 많은 동성애자에게 강간을 당한 이후 자신도 동성애자로 변하게 되는 사례가 높았다고 밝혔다. Exodus International의 Dr. Melvin Wong박사에 의하면 70% 이상의 동성애자들이 10대 때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동성애자와 성경험을 한 사람들로서, 그들 또한 성인이 되어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동성 성행위를 하게 되는 반복적 소아 성행위 형태를 보인다고 조사발표한 바 있다. The Archives of Sexual 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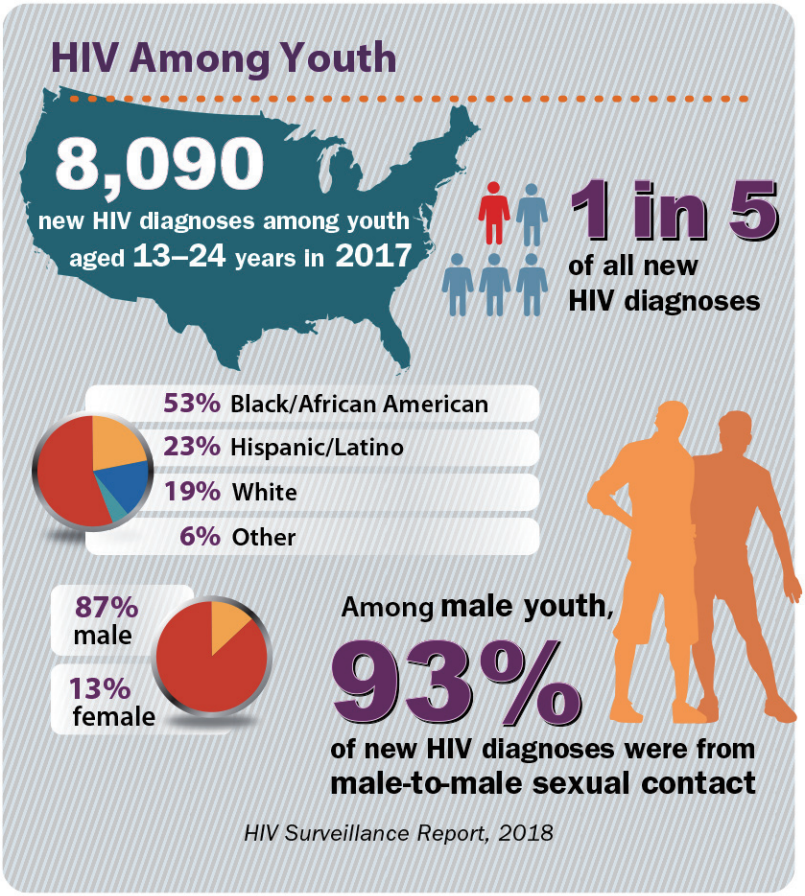
8 10대 남학생 충격 고백 '바텀알바'를 아시나요. "용돈 벌며 동성애 상대 만난다" 일요신문, 2013.03.20.

havior는 "동성애 남성 중 약 20%를 제외하고 가장 어린 나이대의 범주를 선호했다."며 동성 소아성애자들은 아동성범죄 사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조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동성애자들의 73%는 "과거에 16~19세나 그 이하의 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성 동성애자의 46%, 여성 동성애자의 22%가 과거에 어떤 동성의 가해자로 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같이 학계에 제기된 다양한 조사 결과를 볼 때, 소아 동성 성폭행과 동성애자 확산, 그리고 소아성애 행위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음을 가늠해볼 수 있다. ACSF Investigators의 조사 또한 남성 동성애자의 약 40%가 미숙한 소년을 볼 때 동성적 매력 정도가 6~20배 높게 나타난다고 발표한 것을 볼 때, 날이 갈수록 관대해지는 우리 사회의 동성애 인식으로 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소아성애자들의 탐욕의 대상으로 비춰지지는 않을지 적지 않은 우려가 든다.

참고로 국정감사 결과 대한민국 군대 내 성폭력 건수는 2012년 83건에서 2014년 220건으로 265% 증가, 그리고 2015년 668건으로 급증, 2016년에는 871건으로,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합의된 성관계 수치가 아니라, 적발된 성폭행 건수만 집계된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하급자의 음성적인 피해가 얼마나 클지, 상상하는 것조차 가슴이 아프다. 위 연구결과들을 볼 때, 호기심에 의한 자의적 선택이든 타의에 의한 성폭행이든, 한 번 동성 성관계를 겪게 되면 자신도 같은 길을 걷게 될 확률이 크다. 군대 입대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올바른 자녀 교육을 통한 객관적인 사회문제 제기 그리고 건강한 소통을 통한 자기 의사 결정의 확고한 의지를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4. AIDS, 질병, 노숙, 자살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 확산

동성애 확산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인 생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국 정부기관인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 발표한 2018년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청소년 (13세부터 24세 사이) 8,090명이 에이즈에 신규 감염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남성 청소년(male youth)의 93%가 동성 성행위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AIDS에 관한 보도를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제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해외 대부분의 나라들은 동성간 성행위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에이즈 감염을 줄이고자 애를 쓰고 있다. '인권'과 '보건'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성행위와 라이프스타일을 차별이 없이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과연 생명을 지키는 것 보다 더 소중할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홈페이지 발췌)

에이즈뿐만 아니다. 미국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HCHR)에 따르면, LGBT 학생의 1/3에서 2/3 사이는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이를 피해 학교를 여러 차례 옮기는 현상이 빈번하다고 보고했고, 학교와 집에서 거절을 당한 많은 LGBT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가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요 미국 도시의 청소년 노숙자 40 %는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stopbullying.gov의 연구를 인용해 게이 및 레즈비언 젊은이들이 일반 인구와 비교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 할 확률이 3배 높으며, 트랜스 청소년은 8배나 더 많이 자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구기관 Rainbow Health는 LGBT 청소년은 편견과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마약과 술을 접하게 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고,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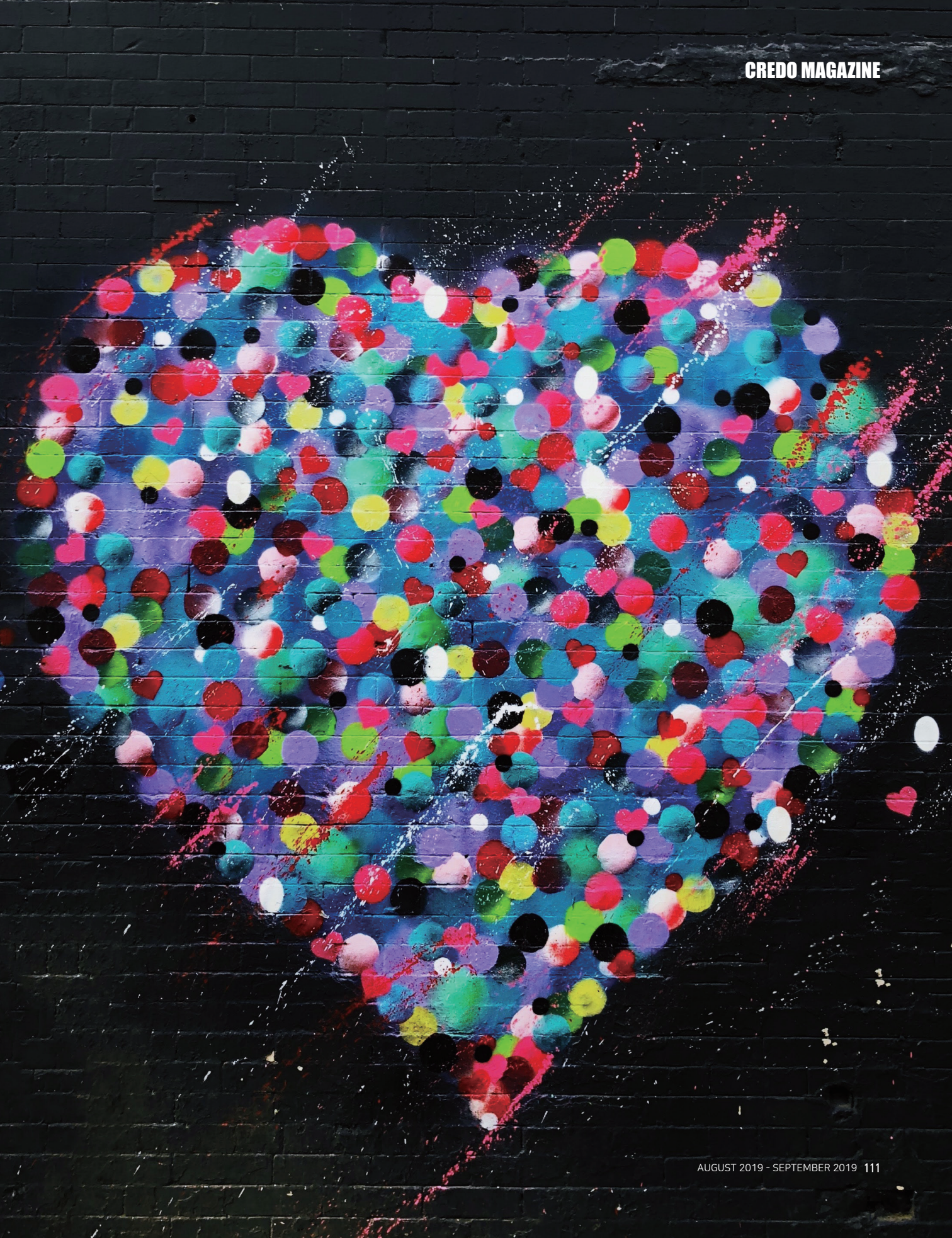
및 신체적 괴롭힘을 당했을 때 자해의 위험이 2.5배 더 높아진다는 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동성애에 대한 육체적 그리고 심리적 피해로 존엄한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때,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동성애 확산을 막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지속적인 연구와 고민, 그리고 범국민적 차원의 관심과 소통이 절실하다.

V. 마치며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표현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삭제함으로, 동성애 콘텐츠는 더 이상 음란한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이로 인해 동성간 키스신, 베드신 등 더욱 노골적인 동성애 장면이 영화와 드라마, K-Pop 뮤직비디오 등에 포진하게 되었다. 이 같은 대중문화의 동성애 미화, 옹호 활동 끝에 우리 사회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한국은 2013년 'AIDS 위험 확산국'으로 지정되었다. 청소년은 자신의 성을 팔아 용돈을 벌며 욕망을 채우고 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할 군대에서는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고, 동성 아동 성범죄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위가 사회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발표한 '정신질환 진단통계 지침서'(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 '소아성애'를 '질병'이 아닌 '성적 지향성'으로 분류해 큰 파장이 일었다[9]. 어린이를 향해 성욕을 해소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와 정신질환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이 같은 제안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사회, 우리는 동성애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 놓여있는 듯하다. 겉으로는 사회 일부에 지나지 않은 소수자의 일인 듯 보이지만, 가족, 안보, 교육, 언론, 종교 모든 분야를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소수자의 문화가 모든 것을 뒤집는 사회적 혼란이 도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건강한 관점에서 바라 볼 줄 알아야 한다. 대중문화 콘텐츠가 보여주는 모든 것은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학문적 근거와 사실에 입각한 건강한 담론과 비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동성애의 사회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결코 차별도 혐오도 아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그저 미화하고 방관하는 것, 그것이 내 가족, 우리 사회를 향한 차별적 시선이요 혐오적 행동이다.

9 美, 동성애 이어 소아성애 행위까지 합법화 수순 밟나. 크리스천투데이, 2013.11.03.